

순천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힘 쏟는다

‘테마여행 10선 관광포럼’ 개최
광역 연계 관광루트 개발
야간 프로그램·팜스테이 등
생활관광 유치 적극 나서야



순천시는 지난 11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수요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순천시 관광포럼'을 개최했다.

순천시가 순천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역 경제 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더 이해하고 지역민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순천시가 지난 11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수요 촉진 방안'을 주제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순천시 관광포럼'을 개최한 것도 이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비대길 권역 공동사업'의 하나로 열린 한국관광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병용 순천향대 교수의 주제발표, 엄서호 경기대 명예교수의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4개 지자체는 남도비대길 권역에 포함되면서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중이다.

정병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및 광역 연계 관광루트 개발 ▲야간 프로그램 도입 ▲올레길 조성 ▲한 달 살아가기 ▲생활관광 활성화 ▲팜스테이 ▲유명 사찰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달 살아가기의 경우 일상을 벗어나는 형태가 아닌, 생활관광형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고 송광사·선암사 등 유명 사찰의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관광객이 머무르는 기간을 늘리는 게 지역 사회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광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지역경제와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 생각이다.

정 교수는 탐사르 습지도시로 세계 첫 인증을 받은 순천만습지를 비롯 국가정원 등으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라는 도시

이미지에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문화재가 150개가 넘는 점, 닭구이, 국밥, 장동어탕, 꼬막정식 등 다양한 먹거리 문화가 발달된 점 등을 순천 관광의 장점으로 꼽았다. 또 지역 체류형 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여행 트렌드,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관광객에 대한 지역민들의 환대 등도 순천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꼽았다.

엄서호 경기대 명예교수도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한다면 생활관광 유치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특히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역

사, 전통, 창조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 정체성이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유발하고 여행객들에게는 '순천다움'이라는 고유성의 형태를 띠면서 생활관광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생활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 수 있는 '순천다움'을 강화하면서 관광 뿐 아니라 도시 경관, 공공서비스, 교육 특성화 방면에서도 '지역다움'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관광 형태를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이 중심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빛낸 인물 한자리서 보세요

신대도서관에 2021년까지 '순천인물도서관' 조성

순천을 빛낸 인물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긴다.

순천시는 순천의 역사와 인물들의 업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순천인물도서관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조성키로 했다. 인물도서관은 새로 지어지는 신대도서관에 조성되며 오는 2022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인물도서관이 순천 주요 인물들의 발자취와 역사 흐름도를 알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교훈 삼아 현재와 미래의 순천 발전을 이 끌어어나가는 데 활용하겠다는 게 순천시 구상이다.

인물도서관에는 순천 출신으로 남다른 자취를 남긴 인물들을 비롯, 순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물들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내년 말까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기증받는 한편, 소장 도서와 인터넷 등을 활용해 도서관에 조성할 인물 자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지역 주요 인물들을 재조명해 지역 상생 및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도서관 도시에 걸맞는 지역 인물 및 역사 클러스트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여순사건 창작가요제 10월 개최 추진

71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민간인 등 1만1000여명이 희생된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비극으로, 희생자들은 좌·우익으로 낙인찍혀 총살당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이 됐다. 좌·우익, 협조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손가락 총'으로 지목당한 사람은 즉결 처분됐다.

여순사건이 71년을 맞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순사건을 주제로 하는 창작가요제가 열린다. 여순사건의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문화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순천시는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 오는 10월 19일 여순사건 전국 창작가요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창작가요제를 통해 여순사건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순천시 입장이다. 광주에서 열리는 5월 창작가요제나 인천 평화창작가요제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유사한 창작가요제 사례를 찾고 시민단체와 여순사건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순천시는 관련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했다.

순천시는 창작가요제를 같은 날 열릴 '2019 순천 평화포럼'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순사건의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설치

청각·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가 순천에 들어선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에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를 설치, 하반기부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격 운영된다.

전남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이 2만 67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 수준이지만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을 감안, 목포에 농아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왔다.

전남도는 시범 운영 결과, 호응도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부권에도 설치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순천지부가 있는 건물 1층에 들어서는 농아노인복지센터는 정보 격차 해소,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재활 교육 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쉬도록 센터 기능도 하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도시 순천 어떻게 만들까... 시민 라운드테이블 다양한 논의

200여명 참석 의견 제시

문화도시 순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순천시가 지난 11일 순천시청에서 개최한 '2019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 The 순천 픽션'은 다양한 문화도시조성사업과 방향에 대한 시민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문화도시 순천, 시민이 말한다'라는 주제의 라운드테이블은 미리 실시했던 시민들과의 20여 차례 간담회와 순천시민 100인 인터뷰, 순천시민 800인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들은 순천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생태·어울림·힐링·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등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순천시청에서 '2019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 The 순천 픽션'을 열고 문화도시조성 사업과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 문화도시의 진정한 핵심가치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며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 2%→5%로 확대

설·추석명절엔 최고 10%

'순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확대됐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설·추석명절 등에는 할인율이 최고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사랑상품권 애용과 구매촉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기존 2%의 할인율을 5%로 확대, 시행중이다.

판매와 환전은 농협은행, 순천농협, 순천원예농협, 전남농협연합의 4개 점포에서 이뤄지면 설·추석 명절 등에는 개인 현금구매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한다.

순천사랑상품권의 종류는 3종(3000원, 5000원, 1만원권)으로, 순천 지역 가맹점 5979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역상품권 확대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현재 가맹점을 7000곳까지 늘리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 종이로만 된 상품권을 모바일, 카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